

“군민 삶의 질 향상 행복도시 ‘여민동락’ 실현”

병오년 새해설계



정철원 담양군수

“2026년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행복을 체험하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담양을 완성하겠습니다.”

치유·힐링 생태 정원 문화도시 조성

출생수당 지급 등 ‘따뜻한 복지’ 강화

AI 활용 어르신 돌봄·스마트 농업도

정철원 담양군수는 7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위기 속에서도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이어왔다”며 “올해는 새로운 도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정에 5만 군민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군수는 올해 군정 운영의 청사진으로 8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며, 가장 먼저 ‘치유와 힐링의 생태 정원 문화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국제명상센터 건립을 통해 치유와 명상의 성지로 브랜드화하고, 전북 순창군과 협력해 한국

마사회 경마공원을 유지, 치유 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죽녹원과 메타랜드 일원에는 야간 경관과 음악 분수를 조성해 ‘밤이 빛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만들며, 2027년 남도정원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작가정원, 디지털 정원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한다.

군민의 삶을 돌보는 ‘따뜻한 복지’도 강화한다. 의료·돌봄 통합 지원과 연계한 병원 동행 서비스, 퇴원 환자 재가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과 동행하는 행정을 펼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18세까지 월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고, 기능성 토마토 ‘토담

토담’ 육성 확대와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조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760명까지 늘리고 기숙사를 운영해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경제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산업 기반도 다진다. 국토부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담양제2일반산업단지’와 ‘메디푸드형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재건축 중인 창평시장은 올해 준공해 지역 상권의 중심지로 키운다.

또한 대덕 지역활력타운, 고서보춘지구 등 2030년까지 6천여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고, 담양읍과 창평·대전면 일대의 도시재생 및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마무리해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인턴십

지원으로 젊은 활력이 불어넣는다.

교통망 확충과 안전 도시 구축을 위해 달빛철도 건설과 국지도 60호선 확장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담양-첨단 간 시외버스 운행 재개 등 교통 편의를 높인다.

이밖에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와 AI로봇 ‘다솜이’ 보급을 확대해 틈새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농업 현장에는 로봇 방제와 수확 기술, 스마트 영농 지원 체계 ‘담양팜’ 운영을 통해 미래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용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담양을 만들기 위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 ‘사평 빨래방’ 복지행정 새 표준 모델 제시

개관 1년 만에 이용률 194% 증가

전 군민 ‘보편 복지’ 차별화 성공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全) 군민 대상 공공 빨래방’이 개관 1년여 만에 이용률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며 생활밀착형 복지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화순군은 7일 “지난 2024년 3월 문을 연 ‘화순 사평빨래방(사진)’의 지난해 말 기준 이용률이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4년 9월 565개였던 이용 세탁량은 2025년 1만 8천 570개로 늘어났고, 이용 가구 역시 3천 920세대에서 7천 574세대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러한 행진의 비결은 화순군민의 차별화된 운영 모델로 타 지자체의 공공 빨래방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군은 대상을 ‘전 군민’으로 과감히 확대했고, 215㎡(약 65평) 규모의 대형 작업장과 건조 시설을 갖춰 하루 최대 200개의 대량 세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시설 구축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기금을, 운영비는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보조금을



활용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한 세심한 현장 행동도 한몫했다. 군은 세탁 위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장단과 부녀회장 등을 초청해 세탁 전 과정을 공개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공정을 눈으로 확인한 주민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군은 이에 맞춰 마을별 수거 횟수를 월 4회에서 6회로 늘리며 호응에 화답했다.

‘사평빨래방’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개관 이후 지역 주민 60명을 채용했으며, 이중 70%를 농촌 지역 여성과 노인 등 취업 취약 계층으로 채워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사평빨래방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화순형 복지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더 꼼꼼한 서비스로 군민들이 ‘화순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신년 ‘간부 소통의 시간’ 가져

새 비전 달성 주도적 역할 당부

고흥군은 “최근 군정 팔영산홀에서 공영민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자유로운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자리에서 공 군수는 새해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고흥의 비전 달성을 위한 간부들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성과 중심 행정 ▲부서 간 협업 강화 ▲현장과 군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2026년을 고흥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신년 간부 공무원 소통의 시간을 계기로



공 군수는 조직 내 협력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축적된 정책 역량을 실제 성과로 연결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2026년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핵심사업들이 하나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라며 “단순한 계획과 준비를 넘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광양시 새 얼굴 ‘매향이’ 등 7종 선정

상징물위원회 거쳐 공식 등록 검토

광양시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새로운 도시 캐릭터 후보 7종을 공개하며 ‘캐릭터 프렌즈’ 구축에 나선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363개 작품 중 전문가 심사 와 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7점을 선정했다. <포스터>

이번 공모전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마스코트 ‘해아’를 보완·대체할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매화꽃 모자를 쓴 사랑스러운 양 캐릭터 ‘매향이’가 안

았다. 우수상은 백운산의 구름 정령 ‘백운이’와 지역 명물 기정떡을 형상화한 ‘기정이가’ 차지했으며, ‘찌너’, ‘광불이’ 등 개성 넘치는 4개 작품이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선정된 7개 캐릭터를 대상으로 향후 ‘광양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상징물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기존 마스코트 ‘해아’는 변화한 캐릭터 트렌드와 매체 환경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마스코트 선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운 마스코트를 중심으로 세계관을 확장한 ‘캐릭터 프렌즈’를 함께 조성해 활용성과 시민 공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 茶문화시설 이용객·수입 역대급 성장

년 52만명 방문…‘말차 열풍’ 붐재

울포해수욕장센터 21억 매출 증가

보성군이 운영하는 차(茶) 문화시설들이 ‘MZ세대 말차 열풍’과 ‘웰니스 관광’ 트렌드에 힘입어 이용객과 수익 모두 역대급 성장을 기록했다.

보성군은 6일 “2025년 한 해 동안 봇재, 한국차 박물관, 울포해수욕장센터 등 관내 차문화시설 운영 결과 총 이용객 52만 3천 359명, 수익금 29억 2천 5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이용객은 4만 5천 305명(9.48%), 수익금은 무려 3억 6천 100만원(27.31%) 상당 증가한 수치로, 단순한 방문객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가 이뤄지는 알짜배기 관광으로 체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성장의 일등 공신은 복합문화공간 ‘봇재’였다. 봇재는 이용객 13만 1천여명, 수익금 7억 3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1.81%, 14.15% 성장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말차(抹茶) 디저트와 음료가 힙(Hip)한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보성녹차의 원산지 이미지가 재조명된 것이 주요했다.



봇재 그리다향에서 이용객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울포해수욕장센터’는 수익 창출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용객은 25만 6천여명으로 7.24% 늘었지만, 수익금은 21억 3천 500만원으로 1.481%나 급증했다.

이밖에 ‘한국차박물관’은 이용객(13만 5천여명)이 11.63% 증가하며 차 문화 알리기에는 성공했으나, 수익금은 1.65% 소폭 감소해 수익형 콘텐츠 보강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문화시설은 보성 녹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말차를 비롯한 트렌디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사계절 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순천시, 이상기후 선대응…농가 피해 최소화

10억 투입 병해충 방제·신기술 보급

순천시가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2026년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불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극한 기상’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개화기 냉해, 돌발 병해충 확산, 낙과 등 노지 과수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확보된 예산을 투입해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선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5억 5천만원) ▲이상기후 대응 재해 예방 시설 지원(3억 5천만원) ▲과수 신기술



지난해 순천시 관계자가 사과 재배 현장 컨설팅에서 사과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과 수형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술 및 재배 기술 보급(1억 5천만원)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는 이제 농업 전 분야의 상시적인 위협 요인이 됐다”며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선진 농업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인간과 동물의 조화’…장성군 ‘쥬토피아2’ 전시전

오는 3월 3일까지 아인미술관서

장성군이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예술로 풀어낸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장성군은 7일 “오늘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장성을 아인미술관(미라다지길 8, 2층)에서 기획전 ‘쥬토피아(Zootopi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쥬토피아’는 동물원(Zoo)과 이상향(Utopia)의 합성어로, 현대 사회에서 동물이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을 다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송영학, 이선희, 이두환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시선으로 해석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인다.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주말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동물과 사회, 세상을 바라보는 파스한 시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